

대전방송 일일 모니터(2012. 12. 3)

북한 관련 보도 과다, '안보장사' 비판 우려

이번 대전방송 모니터 보도서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지상파 3사에서 방송된 안보와 북한 관련 뉴스를 분석했다. 해당 기간 동안 지상파 3사는 모두 33개(11월 22일 KBS의 이슈엔뉴스는 세 개로, MBC의 뉴스플러스는 2개로 계산)의 리포트를 했다.

지상파 3사 안보,북한 관련 뉴스(11월 3일~12월 2일)

	KBS	순서	MBC	순서	SBS	순서
11/3(토)	(심층) 한국형 미사일 방어 윤곽	4				
11/4(일)	임진강 도하 훈련	13			임진강 도하 훈련	16
11/14(수)	북한 미사일 부품 시리아행	10	북한 미사일 부품 시리아행	17		
	(단독) 연변경수로 외형 완공	11				
11/15(목)			북한 대대적 숙청	14		
11/17(토)	항공사격대회	11	항공사격대회	10		
11/20(화)	스텔스 고속함 진수	7				
11/22(목)	연평도 포격 2 주기 이슈엔뉴스 3 쪽지	12	연평도 포격 2 주기 뉴스플러스 2 쪽지	17	연평도 포격 2 주기 1 쪽지	24
11/23(금)	연평도 추모식	4	북한 미사일 징후	4	북한 미사일 징후	19
	북한 미사일 징후	5	연평도 추모식	14	연평도 추모식	20
11/29(목)	北 미사일 발사 촉각...주변국 공조 움직임 빨라져	17	北, '천안함 주도' 김격식 북귀...인민무력부장 등극	18	북한 '운구차 호위' 군부 4 인방 물갈이	16
12/	北 "오는 10 일~22 일	4	北 "오는 10-22 일 사이	2	北 '장거리 로켓	2

1(토)	사이 실용위성 발사"		실용위성 발사"		발사' 공식화...10~22 일 예고	
	[심층취재] “北 로켓 조립 중”...‘도발 중단’ 압박 강화	5	北, 주민 불만 잠재우기 위해 로켓 발사 강행할 듯	3	대선과 겹친 로켓 발사 기간...북한의 속내는?	3
12/ 2(일)			北, 中·일에 로켓발사 이미 통보...국제사회 일제 비난	15	北 "로켓 1 단 추진체 서해 낙하" 주변국에 통보	6
건수	14	8.6	11	11.4	8	13.3

전체적인 결론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타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KBS 뉴스가 유독 북한과 안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량의 뉴스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에 비해 내용은 군사 훈련과 북한 미사일로 요약될 정도로 단순했고 일부 뉴스에서는 위성사진을 사용하면서 사진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차 대선공정방송위원회에서 선거가 임박할수록 북한과 관련해서 당국의 ‘안보 장사’나 ‘언론 플레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보에 대한 각별한 검증을 요구했다. 우려했던 대로 북한 관련 뉴스는 대부분 단일 정보원으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제시된 정보에 비해 지나친 비약도 있었다. 각별한 검증과 절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도에서 KBS 뉴스는 흥분하고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은 KBS가 MBC와 SBS에 비해 안보와 북한 관련 뉴스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된 리포트 건수를 보면 KBS는 14개인데 반해 MBC와 SBS는 각각 11개와 8개였다. KBS 9시 뉴스는 건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아이템들의 배열 순서에서도 타사에 비해 위에 배치됐다. 그만큼 KBS가 관련 뉴스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타사에 비해 군사 훈련에 대한 취재가 많다는 것이다. ‘임진강 도하 훈련’, ‘항공사격대회’, ‘스텔스 고속함 진수’, 연평도 추모식’ 등으로 주로 군사 훈련이나 예정된 행사였다.

북한의 핵 시설이나 미사일 발사 준비 등과 관련된 동향을 전하면서 위성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사진을 촬영한 주체가 누구인지, 사진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 시청자들이 정보의 신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처리했다. 특히 위성사진이 정보 당국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상업용 위성이 촬영한 것이었다면 뉴스는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사진에 대한 해석 역시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마치 정보 기관이 직접 촬영한 듯한 암시를 주면서 ‘정부 당국’이라는 모호한 이름을 빌어 이를 해석하는 것은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

과장된 해석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수로 시설의 외형이 완성된 것을 근거로 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피해 복구공사를 끝낸 북한이 3차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이는 국제적인 특종이다. 그러나 뉴스는 더 이상 이를 강조하지 않는다.

뉴스는 경수로 시설의 외형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외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독] “北 영변 경수로 외형시설 완공 확인”(11월 14일)

<앵커 멘트>

최근 북한 영변과 풍계리의 핵 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영변 경수로의 외형 시설이 완공된 게 확인됐고 3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 징후도 포착됐습니다.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촬영한 북한 영변 지역의 위성사진입니다. 직경 22미터, 높이 40미터의 경수로 꼭대기에 동형 지붕이 덮여 있습니다. 터빈 건물의 외벽도 정리돼 외관상으로는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착공 이후 2년여 만으로 발전 용량 25~30메가와트의 경수로 외형을 완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 경수로가 에너지 생산을 위한 민수용이란 주장이지만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에 전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금 갖고 있는 5MW의 원자로보다 6~10배 정도의 플루토늄을 더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인근의 우라늄 농축 공장과 핵 재처리 시설까지 포함하면 대규모 핵 시설 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풍계리 핵 실험장, 지난 4월 촬영된 사진에 비해 새로 굴착한 갱도 주변에 토사량이 약간 증가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피해 복구공사를 끝낸 북한이 3차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는 지난 4월 로켓 발사 실패 이후에도 엔진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대비해 협상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관련국들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니다.



정보당국 “北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예의주시”(11월 23일)

<앵커 멘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미사일 부품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로 옮겨진 점에 주목하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발사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분 만에 폭발해 서해로 추락했습니다. 그 뒤에도 북한은 발사대가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미사일 연소시험 등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엔 미사일 관련 부품이 평양 산음동 미사일 공장에서 동창리 기지로 옮겨진 동향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부품의 크기는 4월에 발사했던 미사일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북한은 예비용 미사일을 한기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심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15일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대표는 각종 실용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미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정부 출범과 한국 대선 정국을 맞아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4월 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국제해사기구 등에 미사일 발사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점과, 액체 연료 특성상 추운 겨울에 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미사일 발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실제 도발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보, 특히 북한과 관련된 뉴스는 정보를 판단하고 이를 뉴스로 다루는 방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정권이나 일부 언론이 벌여온 ‘안보장사’를 기억하고 있다. 특히 북한 관련 보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원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과대

해석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 한 달 동안 KBS 9시뉴스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